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56호 2017년

1월

발행일 2017년 1월 발행(56호)

발행인 신홍균

편집인 서경교

발행처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획·편집·인쇄 경성문화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본원의 동정을 비롯하여 전문건설 관련 정책·제도의 주요 동향과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신년사
이슈진단
연구원소식
발간물안내



신년사

New Year's Address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2017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닦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명을 알리는 상서롭고 신통력을 지닌 '태양의 새'로 여겨 온 동시에, 울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려주는 예지 능력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어둠과 밝음의 경계에서 새벽이 오고 있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 것처럼 우리 전문건설인도 그간의 어려움과 역경을 뜨거운 열정과 집념으로 극복하여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한 해가 되길 기원 드립니다.

사랑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2017년 새해에는 국내정치 환경의 불확실성과 정부의 SOC예산 축소, 미국의 단계적 금리인상과 한층 강화된 주택금융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전문건설업계는 또 다른 도전과 시련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중앙회는 이러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업계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역확대 문제, 원도급시장 진출, 수익성 개선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외건설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 정비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올 한해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중앙회가 전문건설업계의 권익신장과 위상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만큼, 여러분께서도 미래를 위한 과감한 변화의 당당한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글로벌 완구회사인 '레고'는 10여 년 전 파산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회사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 매년 두 자리 이상의 성장을 거두며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전문건설업자의 권익과 지위 신장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동반자 인식, 전문건설인의 단결과 화합이 필수불가결합니다.

저는 ‘바다는 작은 물, 큰 물, 더러운 물 그리고 깨끗한 물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여 그 결과 비로소 깊어진다.’는 해불양수(海不讓水)의 마음가짐으로 전문건설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작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희망찬 내일,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전문건설업계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열정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정유년 새해에 전문건설 가족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2017년 정유년의 해가 밝았다. 해를 대신한다는 붉은 닭의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 건설업 또한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날씨만큼이나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단 건설업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자체가 만만찮은 한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며, 안 그래도 움츠린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업을 더욱 움츠리게 하는 현실이다. 정말 돌파구는 없는 것일까?

현실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올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기존의 지배적 의견이며, 객관적인 상황을 들추어봐도 딱히 돌파구는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도약을 위한 정비다.

건설업의 세부적인 이슈들로 눈을 돌려보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해야 할 것들이 많다. 우선 주택부문을 돌아보면 노후주택의 문제가 있다. 인구절벽으로 향해가는 시점에서 이 노후주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비단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다. 기본계획도 필요하거니와 이에 대한 거대 담론을 준비하고 펼쳐야 할 절호의 기회다.

두 번째로 SOC문제다. 정부에서도 양적 문제가 아닌 질적 문제로 보고, 연구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곳은 우선 투자하는 형태로 바꿀 것을 천명한 시점에서 문제의 본질은 SOC 투자 자체가 감소한다는 부분이다.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SOC는 2만 달러 소득에서 4만 달러로 소득수준을 늘릴 때 적극적으로 사용한 방법이 SOC 투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저출산의 문제가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주요 요인인 상황에서 적극적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 말고는 별다른 개선 방안이 없으며, 인프라의 구축은 생활밀착형 SOC와 인프라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가계의 소비 없는 경제의 향상은 없으며, 건설업은 그 중심에 항상 있어왔다. 질적 향상의 핵심은 바로 서민생활에 밀접한 건설업을 통한 인프라의 개선이며, 앞으로 SOC투자의 방점은 바로 이 부분에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 투입과 더불어 규제 완화 및 상생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정부는 정책의 화두를 규제 완화에 두고 여러 정책을 시도하였으나, 미비한 점이 많다. 리더십이 부재한 정치적 상황이나, 규제 완화의 시도는 계속될 필요성이 있으며, 기업이 진정으로 원하는 규제 완화에 대한 빠른 논의와 전개가 필요한 올해다.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분석

국토교통부의 2017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등 업무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번 업무계획은 6대 추진 계획으로 요약되며, 그 내용은 경제살리기, 주택정책 지속, 안전 강화, 교통 편리, 복지 강화, 신성장 동력 확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올해 국토부의 핵심이 될 6대 추진 계획 중 건설과 관련된 정책을 요약 및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한다.

먼저 서민과 중산층을 아우르고 있는 주택정책의 축은 임대주택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시장의 안정적 관리라는 두 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단 공급적 측면에서 행복주택의 목표 달성과 뉴스테이 공급 확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11.3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행하여 리스크 관리와 동시에 적정수준의 주택공급이 유도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주택시장이 과열된 양상을 벗어나 급랭해진 분위기를 보았을 때, 현재의 정책은 어느 정도 관리적 측면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안전과 관련된 계획으로 지진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내진 보강 등 설계기준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신축건축물의 내진규정 강화 및 기존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진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부분인데, 일단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하여 제도의 이행력, 책임소재의 명확화, 품질관리 강화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교통과 관련되어서는 인프라 구축 또는 개선의 이슈로 이와 관련된 발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철도와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서비스 개선과 더불어 고속철도의 개량과 역사개편 및 보수 등이 올해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에 관련된 민자사업 등도 계획되어 있다.

네 번째, 동반성장과 관련된 사항으로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질서를 개선하여 건설약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항으로 불공정관행 개선, 대금체불 근절, 담합 예방 등이 실제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기준제시, T/F, 실태조사 등 여러 가지 시스템적 보완을 통해 동반성장이 정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 건설에 AI나 ICT가 접목된 건설신기술 등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건설기술 확보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이 적절한 시기에 진행되어 저성장 기조를 이겨내고, 미래를 여는 건설업이 되는 시초이길 기대해 본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신고객 창출방안을 위한 연구과제 발표회 개최

- 우리 연구원은 지난 1월 18일, 전문건설회관 6층 회의실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 신고객 창출방안을 위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가졌다.
- 동 발표회는 전문건설공제조합 기획조정팀과 함께 기획한 것으로 송원현 경영기획본부장, 한옥만 경업지원본부장, 임동빈 기획조정팀장, 한호섭 영업기획팀장 등 전문건설공제조합 임직원 참석한 가운데, 우리 연구원의 홍성호 연구위원이 “한옥 활성화를 위한 시공업 등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결과에 대해, 박선구 책임연구원이 인테리어공사 보증신상품 검토를 중심으로 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사업확대 방안 검토 과제에 대한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신년 정책세미나, 전문 건설정책 부문의 이슈와 과제 발표

- 우리 연구원은 오는 1월 24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의 신년 정책세미나에서 “전문건설정책 부문의 이슈와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 본 세미나는 “2017년 건설산업의 10대 정책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건설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올해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업계·학계·연구기관의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상생협력 건설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신문과 함께 우리 연구원이 공동 후원한다.
- 이날 발표를 맡은 홍성진 선임연구원은 전문건설업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건설산업의 융합정책 방향”의 주제를 발표하면서 전문건설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환경산업, 정보통신산업과의 융합을 위한 정책수립과 입법의 필요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하도급리스크 체크리스트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 본 연구는 지난해 기 수행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해외건설보증 리스크 관리방안”에서 제시한 전문건설 해외공사 하도급리스크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이를 통해 수집된 리스크 정보를 기반으로 해외보증 심사 및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동 보고서에서 해외건설 하도급리스크 요인의 측정방법을 고려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입력 및 평가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하도급리스크 정보수집을 위한 기반마련은 물론 나아가 전문건설업체가 해외진출 시 고려해야 할 실용적인 하도급리스크 체크리스트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는 무단 인용, 도용, 재가공, 전재 및 복제, 배포 행위를 일절 금합니다.